"원효 '一心' · 대행 '한마음' 서로 맞닿아"

고영섭 교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일심 · 한마음 구조 분석 통해
두 사상간 동일 · 상이점 조명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란
禪의 지평서 상통함 강조해

五共 연계 치유명상 제안한
김응철 교수 논문도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의 일심(一心)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비교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12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개최한 '제2회 계절발표회'에서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분황 원교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을 발표한 고영섭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고영섭 교수에 따르면 일심은 매우 압축적인 개념으로 아뢰야식과 여래장 · 선으로서의 일심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그는 "원효가 망식인 아뢰야식으로서 일심, 진망화합식인 여래장으로서 일심, 화엄의 진심으로서 일심, 선법의 본법으로서 일심 등으로 철저히 일심의 지형도를 그려나갔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마음에 대해서는 '불성-한마음주인공-한마음-오공'을 주축으로 분석했다. 고영섭 교수는 대행 선사의 법어를 인용하며 "한마음은 진실로 텅 비어 있고 없음, 좋고 나쁨의 양면을 떠나 중도에서 그 힘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은 붓다가 설한 중도의 일심에 상응하는 원효의 일심지원(一心之源)과 일심의 관계와 상통한다"고 밝혔다.

고영섭 교수는 일심을 일심지원과 일심으로 구분하고 이와 대비해 한마음을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는 "대행 선사는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을 구분해 설하기도 했다. 한마음 주인공이 본래 마음이라면 한마음은 여기로부터 나온 중생심"이라며 "원효스님에 대응해 말하자면 한마음 주인공은 일심지원에 해당되며 한마음은 우주적 마음인 일심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마음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야기되지만 한마음과 한마음 주인공은 제8 아뢰야식과 제9 아마라식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영섭 교수는 선(禪)의 지평에서 두 사상의 접점을 찾았다. 그는 "대행 선사는 참 주인인 주인공은 텅 비었기에 너와 나의 나눔이 없다고 했다. 너와 나의 불이는 일원상으로 귀결된다"며 "텅 비었지만 꽉 찬 일원상 한마음을 형상화하며 일심을 형용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그려낸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은 길 없는 길에서 문 없는 문을 연 것이자 길 아닌 곳에서 문 아닌 문을 연 것"이라며 "그것이 원효의 일심지원, 일심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행선 사상의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연구'를 통해 오공정신과 문화치유명상 프로그램과 연계 ·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응철 교수는 "대행선에서 강조하는 주인공, 한마음의 화두와 오공정신의 실천을 문화치유명상과 연계시킨 것은 대행선의 대중화,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대행선이 사상이나 관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을 통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이 새롭게 마련한 '계절발표회'는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로 연 4회 개최된다.

"의례 바뀌어야 법회가 바뀐다"

송현주 교수, 〈불교평론〉 겨울호서 주장

주소 · 성명 나열 축원 '지루'
의례 형식 · 내용 다듬어야

반복적이고 복잡한 의례를 대중 법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소고(小考)가 발표됐다.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불교평론〉 겨울호(통권 제76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재 대중법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현주 교수는 1980~90년대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불교가 침체기로 진입할 것을 예견했고, △불교 의례의 재정비 △의례의 현대화와 한글화 △법회의례의 대중화 △불교생활 의식의 대중화 등을 제안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한국불교의 신도 수가 감소하고 침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교의례가 본연의 기능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일요법회에 국한해서 볼 때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돼 온 한국불교 의례의 문제점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현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의례가 복잡하며 반복적이고 축원의식도 동참불자의 주소, 성명을 일일이 낭독해 시간을 끌어 지루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요법회의 경우 법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법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더라도 시간이 짧거나 알맹이 없는 설법이 많다는 지적도 여전히 주의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회에 참석하는 불교도들을 위해 의례 형식과 내용을 가다듬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으로는 '불교, 거듭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불교의 평화론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남북문화유산 교류 성과 담다

국립문화재硏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

신계사 · 영통사 복원사 수록돼
불교 참여 북관대첩비 환수도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남북문화유산 교류 성과를 담은 연구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에서 추진된 사례와 연혁을 집성한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배경과 체계, 전개 과정을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특히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남북 단청문화교류 사업, 개성 영통사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한일불교계가 주도한 북관대첩비 환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성과 외에도 남북 당국이나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언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교류 ·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라며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중간점검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국내 · 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외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硏 티베트어 강좌 개설

내년 1월7~18일 종합강의동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2019년 금강아카데미 제11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따시델레 티베트어'를 개설한다.

1월 7일부터 18일까지(토 · 일요일 제외) 금강대 본관 종합강의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문법반을, 하영수 금강대 교수가 강독반을 맡아 강의를 진행한다.

교재는 각각 미하엘 한의 〈고전티벳어문법〉과 〈법화경〉 '여래수량품' 티베트어본 강독 자료다. 불교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불교와 티베트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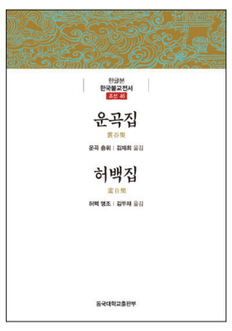
수강료는 한 강좌 10만원, 두 강좌를 동시 수강하면 15만원이다. 기숙사비와 식비, 교재비는 별도. 신청은 내년 1월 3일까지 전화나 이메일(gcbs@ggu.ac.kr)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1)731-3614 신성민 기자

佛儒 교류 · 의승장 기개 담은 고승 詩文들

동국대 ABC사업단, 한글본 〈운곡집 · 허백집〉 발간

조선 시승 운곡과 유생 교유
승병장 허백 시세계 확인돼



조선시대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문집 한글본이 잇달아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곡집 · 허백집〉을 간행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조선 중기 고승인 충휘 선사(?-1613)의 시집인 〈운곡집(雲谷集)〉과 같은 시기의 고승 허백당 명조(1593~1661)의 시문집인 〈허백집(虛白集)〉을 한 권으로 엮은 이번 한글본 발간은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 문집은 고승들의 시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충희 선사의 〈운곡집〉에 대해 ABC사업단은 "170여 수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시집이지만, 한 시대 지식인들의 교류상을 엿보기에는 좋은 자료"라면서 "유교를 국시로 삼은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식인들이 학식 높은 승려들과 격의 없이 교유했던 사실을 시로써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묘호란 전후 의승장으로 활약한 고승 허백당 명조 선사의 〈허백집〉은 전란과 관련된 참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ABC사업단은 "책의 내용에는 선사의 행적과 더불어 시문을 통해 선사의 선교관(禪敎觀)과 의승장으로서의 기개를 엿볼 수 있다"며 "명조 선사는 사찰과 명승지를 유람하며 많은 시를 남겼으며, 선후배 스님들과 주고받은 시 및 유생들과의 교분관계를 보여주는 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책의 서문에는 불교사상 선사의 법맥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를 통해 석옥 청홍(1272~1352)부터 명조 선사에 이르기까지의 계통을 명백하게 기술한 점은 시문 이상의 주목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BC사업단의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1,000(세로)×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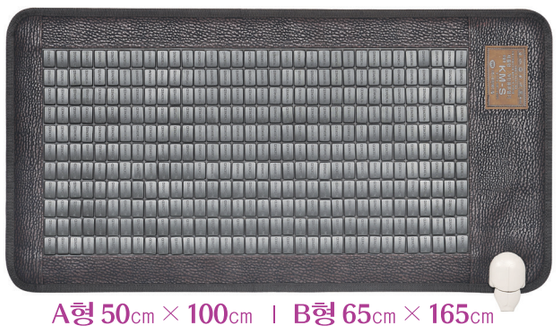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 개로 구성



A형 50cm × 100cm | B형 65cm × 165cm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